

2005년 자전거 사업 지자체 이관 후 지원 전무 자전거 활성화 말로만 하나

“국가 사업 다시 환원 인프라 확충 서둘러야”

정부가 최근 전방위적인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으나, 지난 2005년 광주시 등 지자체에 이관된 자전거 인프라 확충 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환원하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질 수 없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정책에 광주시를 비롯한 도심권 자전거 인프라 확충사업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자전거가 대중 교통 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18년까지 10년간 1조2천450억원(국비 50%·지방비 50%)을 들여 총 3천114km 구간의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여기에는 전국 해안선과 접경지역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자전거도로 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난 2005년 지방사무로 이관된 자전거 사업을 다시 국가사무로 이관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 조치 이후 현재까지 광주시를 비롯한 광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그나마 광안구가 유일하게 자전거 시범도시에 선정돼 매년 6억씩을 지원받고 있을 뿐 나머지 지자체는 예산 때문에 사실상 인프라 확충사업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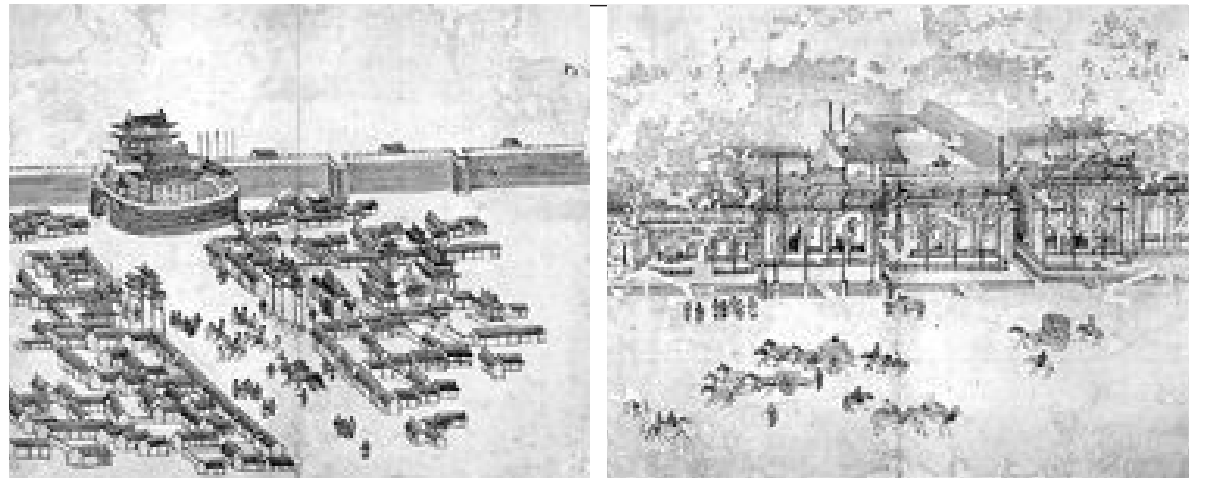
정부의 이번 자전거 활성화 방안이 자전거 보급·활성화의 한 축인 도심 생활권 자전거 인프라 확충사업이 두

렷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도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안·접경지역에 자전거 인프라를 편중 확충하기 보다는 자전거 잠재 수요층이 많은 도심권 인프라 확충사업에 대해서도 전폭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광주시 관계자는 “열악한 재정환경 때문에 지자체가 자전거 인프라 확충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활성화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도심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조선 사신단의 중국 사행길 풍경을 피노라마처럼 그린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연행도(燕行圖) 전체 14폭 중 중앙문(朝陽門)을 그린 장면(왼쪽)과 북경의 저명한 서점 거리인 유리창(琉璃廠).

200여년간 작가 몰랐던 ‘연행도’

“단원 김홍도 작품이다”

그림 소장 송실대 박물관측 밝혀

조선 사신단의 중국 사행길 풍경을 피노라마처럼 그린 송실대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 ‘연행도(燕行圖)’의 작가가 단원(檀園) 김홍도(金弘道·1745~?)로 밝혀졌다는 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

한국기독교박물관 최병현 관장은 설립자인 매산(梅山) 김양선(金良善·1907~1970) 박사가 1967년 기독교박물관을 송실대에 기증할 때 함께 인계한 이 연행도를 영인본으로 제작, 발간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1789년 연행사실 일원으로 연행을 다녀온 김홍도가 그린 작품임이 확실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연행도는 조선 후기 청나라 수도인 연경(燕京·북경)에 파견된 조선 사절단이 육로로 왕래하는 풍경과 연경에서의 공식 행사를 1폭 발문(跋文)과 함께 13폭

의 그림에 담은 것으로 지금까지는 작가 미상의 1760년대 작품으로 설명되곤 했다.

연행도 전문가인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은주 박사는 이 연행도 제10폭에 담긴 ‘벽옥(碧玉)이란 국자감(국립대학)의 부속 건물’이 1784년(정조 8년) 겨울에 준공된 사실에 주목해 이 연행도가 1784년 이후에 제작됐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김홍도는 정조 13년(1789), 조선에서 청에 파견한 동지사(冬至使) 사절단의 정사(正使)인 이성원(李性源)의 요청으로 사신단에 포함된 연경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일성록(日省錄)이나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등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홍익대에서 조선 후기 회화사를 전공한 박효은 교수는 이 연행도가 사신단의 공식 일정보다는 그들의 유희를 비중 있게 묘사한 점을 고려할 때 “1790년이나 그 직후 단원 김홍도가 그린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기업 기준 직원 임금도 깎는다

신입 이어... 성과급 차등 지급 확대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기관에 연봉제와 임금피크제가 대거 도입되면서 신입에 이어 기존 직원들의 임금도 삭감될 전망이다. 성과 부진자에 대한 퇴출프로그램과 내부성과급의 차등 지급이 더욱 확대된다.

2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점검 워크숍’의 후속 조치로 이런 해신 방안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내 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대졸 신입 초봉 삭감과 형평에 맞게 공기업 기준 직원의 임금체계를 하향 조정하고 성과급 비중 확대로 개인별 급여 차이를 벌리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재정부는 공기업의 직원들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연봉제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상

반기 안에 작성해 공기업에 내려 보낼 계획이다.

정년 보장이나 연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임금피크제 도입 또한 대부분 공기업에서 연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또 성과관리시스템도 강화키로 하고 실적 평가에 따른 성과급 차등 폭을 확대하는 등 내부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과급 비중을 전체 급여의 30%선, 차등 폭 또한 30%선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빛의 만평

- 김중두



더 이상 개선서 용 나는 일은 없다

급여 ‘십시일반’ 일자리 창출

광주시 간부 공무원 기본급 1억여원 모아

광주시가 간부 공무원들의 기본급 기탁액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380명의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기탁한 기본급 모금액 (1억3천600여만원)으로 지역 출연 연구소와 협력, 경제위기 극복과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맞춤형 R&D 인력양성 취업약정사업’을 실시키로 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체가 원하는 기술을 지역내 출연연구소에

서 수탁받아 개발과정에 인턴을 참여시켜 개발기술을 중소기업체로 이전하고, 중소기업체는 참여 인턴자를 채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날부터 29세 이하이 공개형 대학졸업자중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전자·광·금형산업분야 중소기업체에 근무할 인턴 모집공고를 냈다. 시는 15명의 인턴사원을 채용, 이들이 오는 12월 인턴기간을 마칠 경우 내년 초에 전원 참여 기업체에 취업시키기로 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

미네르바 “기회 되는 대로 글 쓰겠다”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 씨는 21일 “기회 되는 대로 글을 쓸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네르바’는 박 씨가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쓰는 필명이다.

박 씨는 이날 오전 “100여일동안 수감돼 있으면서 잠을 충분히 자지 못했는데 이제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좋았고, 무죄로 풀려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으로 글을 계속 쓸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글을 썼다는 이유로 구속되는 등) 여기까지 왔는데 말 망설이겠느냐. 익명이나 실명이나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야지 글 내용 중 1~2%가 잘못됐다고 문제를 삼는 것은 합리적 법치주의가 아니라며 검찰의 수사와 구속에 대한 억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현 경제상황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예측이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찌 막 출소한 상황에서 뭐라 말하기 힘들다”며 말을 아끼면서 서도 경제를 바라보는 자신의 소신은 분명했다. 그는 “현재의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돈을 마구 쏟아내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한다”고 했다.

양식어장 화장실

반드시 설치해야

앞으로 양식어장에는 의무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야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수산업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그동안 ‘기르는 어업 육성법’,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 발전 특별법’ 등에 흩어져있던 기르는 어업(양식업) 및 수산업 육성 관련 항목을 통합하고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개정안은 수산물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5면개재

부동산 매각 공고

소재지	소지지	규모	면적	비고
무등	광주광역시 동구 남산로 52-4	BA-FB	면적 2,478.70	
			건물 9,898.52	
상무	광주광역시 서구 차분네 1209-7	BA-FB	면적 1,589.30	
			건물 6,428.00	

2. 매각대상: 수의계약
3. 매매대금: 현의 가능
4. 매각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 (TEL: 02-789-2407, 2420)로 문의 바람
상기와 같이 공고함.
2009년 4월 22일
㈜대진증권부동산(주) 총무부장

한정승인공고

광 손제흥 (051109-1552216)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한정승인(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에 관한 민법 제 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 번호: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나 단 74 공 고 인: 손상원, 김옥심
한정승인수리일: 2009. 4. 8.
공고기간: 2009. 4. 22 ~ 2009. 6. 21
연 락 처: 광주 동구 공동 13-1 김 옥 심 (010-6097-2640)

光州日報

광고접수안내

구직·운전·모집·초빙
영입·도입·매입·매매
임대·전세·부동산

이메일: design@kwangju.co.kr

◆광주은행: 001-107-228160
◆농 협: 617-01-108334
※예금주: (주)광주일보사

•직통: (062) 227-9600
•FAX: (062) 227-9500

알칼리 이온수기 대표브랜드 **이온니아**

‘삼백만불 수출의 탑’ 수상기념

무료체험단모집

1 신청기간: 2009. 3. 10(화) ~ 2009. 4. 30(목)
2 체험모델: JP 102 (100명 한정)
3 15일 무료설치 후 렌탈, 구매 결정하시면 됩니다.

※중고이온수기 보상판매
※이온수기 설치 및 철거 비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이 없습니다.

<무료체험단 우선 선정 조건>
가족중에 위장장애증상, 위산과다, 소화불량, 만성설사, 아토피, 고혈압, 당뇨, 변비등 질환이 있으신 세대

문/의/전/화 1544-1219, 062)515-6944

렌탈
고급 알칼리 이온수기
월 29,000원

고객관리사원모집

채권채무신고공고

본 회사는 2009년 4월 1일 대표이사 변경에 따라 채권채무를 확인하여 갹신하고자 합니다.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채무가 있는 분은 2009년 5월 22일까지 그 채권채무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민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 및 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09년 4월 20일
씨에스에프(주)
전남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111번지
대표이사 홍윤식
(061-332-2166~8)

해산및채권체계공고

당 법인은 2009년 4월 3일 조합원 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09년 4월 16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나 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게제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채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약 위 기일내에 제출이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2일
여원유자영농조합법인
여수시 주심동 792
청산인 김한준

투자자모심

•월2부 수익금지급
•확실한 담보130%
•안전보장,수익보장,비밀보장
•최소 5,000만이상 투자가능

서강파이낸셜
☎062)653-7500